

일가정양립, 산업단지로 확산 노동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올해 구로·구미·광주첨단·반월시화 4개 산단 중심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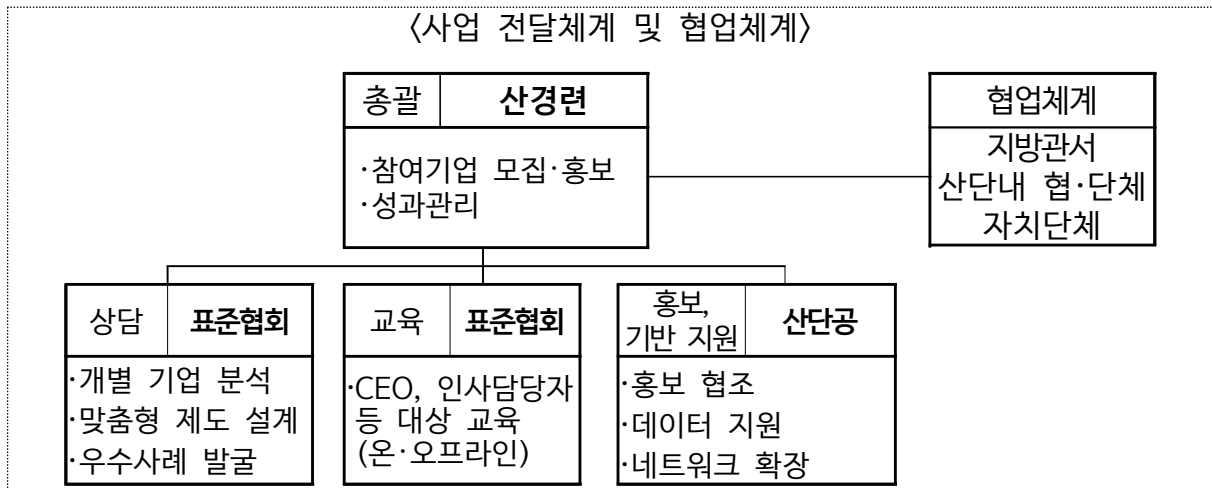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지원제도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다. CEO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과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 휴직 등 제도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한 번에 안내부터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제도를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올해 사업은 구로디지털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반월시화산단 등 총 4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각 산업단지는 노동자 구성과 제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사업에는 약 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표준협회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참여 기업 발굴부터 교육, 상담, 지원 연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현장 지원 구조를 통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전통적, 획일적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행사 개요
-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 3.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개요
- 4. 일·생활균형 관련 주요 지원제도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담당자	팀 장	이상전	044-202-7962
			사무관	김상엽	044-202-7497
			주무관	오영배	044-202-7502



□ 배경

- 저출생 극복, 청년·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 중심으로 일·생활균형 제도 현장 집중 지원
⇒ 사업 초기 인지도 제고 및 건의 사항 수렴 등 위한 간담회 개최

□ 주요 내용

- 일시·장소: 4.14.(화) 16:00~17:05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참석자
 - (노동부) **장관**, 고용지원정책관, 경기청장
 - (국회) 박해철 의원
 - (운영기관·유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주)커리어넷 대표
 - (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주)),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등 6개소

□ 세부 일정 (안)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5:55~16:00	5'	▸ 사전 환담	장관 , 박해철 의원 등
16:00~16:04	4'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6:04~16:10	6'	▸ 인사 말씀(각 3분)	장관 , 박해철 의원
16:10~16:15	5'	▸ 세레머니 및 단체 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6:15~16:30	15'	▸ 사업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 발표	운영기관, 우수기업
16:30~17:00	30'	▸ 참여기업 간담회	기업
17:00~17:05	5'	▸ 마무리 말씀	장관 , 박해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주신
박해철 의원님과
최철호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님,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님,
문동민 한국표준협회 회장님,
이준기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장님,
이호준 커리어넷 대표님을 비롯해,
산업단지 현장을 이끌고 계신
기업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 등
산업 전반에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 상황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존의 9 to 6로 일하는
전통적, 획일적인 근무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단지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중소기업과 같은 작은 사업장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자,
수많은 노동자의 삶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산업단지가 얼마나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간 정부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 등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의 전달방식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로 직접 찾아가
기업별 여건에 맞는 교육, 상담,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거나
부담으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일생활균형은 청년의 일자리 선택과 부모의 경력 유지,
기업의 인재 확보와 경쟁력 과도 직결된 과제입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은 비용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됩니다.

정부는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동료의 업무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상황에 맞추어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남성이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산업단지 내 일생활균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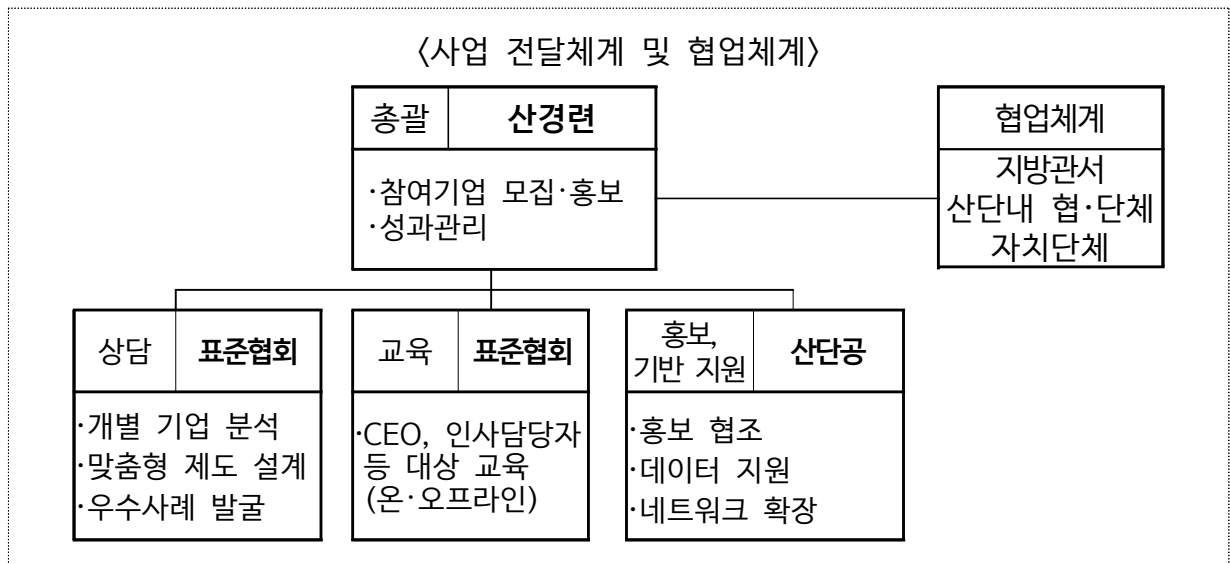
산업단지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26년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개요

- (사업목적) 일·생활균형제도 확산을 위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현장 집중 지원
- (지원대상)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상 모성보호, 유연근무 등 일·생활균형제도 교육, 홍보, 상담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
 - ①제도 상담(정책 안내 및 맞춤형 제도 설계), ②기업의 인사담당자·사업주 대상 교육, ③정부 지원제도 연계(“메뉴판” 활용, 현장·온라인) 및 ④홍보
 - * 육아휴직·대체인력·유연근무 지원금, 일터혁신컨설팅 등 지원제도를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
 - 경제단체, 산단 내 협·단체, 고용센터, 자치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기업 모집, 홍보, 지원 연계 등 수행
- (운영기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신·출산	육아	일·생활균형
사업주	<p>중소·중견 위라벨장려금 월 50만원/1인 * 가족돌봄, 임신 등 소정시간 단축 허용한 사업장 지원</p> <p>중소 대체인력지원금 월 140만원/1인 * 30인 이상 : 월 130만원 ** 육아휴직, 단축 등에 대한 대체인력 활용 시 지원 *** 대체인력 알선 : 인재채움뱅크</p> <p> 신청하러가기</p>	<p>중소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1인 *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 100만원 ** 사업장당 1~3번째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에 월 40만원</p> <p>중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1인 * 사업장당 1~3번째 대상자에 월 40만원</p> <p>중소 대체인력지원금 월 140만원/1인 * 30인 이상 : 월 130만원, 육아기 단축 120만원 ** 육아휴직, 단축 등에 대한 대체인력 활용 시 지원 *** 대체인력 알선 : 인재채움뱅크</p> <p>중소 업무분담지원금 월 60만원/1인 * 30인 이상 월 40만원, 근로시간 단축 20만원 ** 육아기 직원의 업무공백을 분담하고 보상한 사업장 지원</p> <p>중소·중견 유연근무 장려금 (육아기) 월 60만원/1인 *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등</p> <p>직장어린이집 지원 운영비 월 520만원 / 인건비 월 138만원 설치비 20억</p> <p>중소·중견 육아기 10시 출근제 월 30만원/1인 * 육아사유로 임금감소 없이 1일 1시간 소정 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사업장 지원</p>	<p>20인 이상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컨설팅 * 기업 진단 이후 근로시간 관리 방안 등 컨설팅 지원</p> <p>중소·중견 위라벨장려금 월 50만원/1인 * 가족돌봄, 임신 등 소정 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사업장 지원</p> <p>20인 이상 위라벨 + 4.5 프로젝트 월 80만원/1인 * 임금감소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신규 채용 지원</p> <p>중소·중견 유연근무장려금 월 30만원/1인 *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등</p> <p>일 생활균형 시스템 1,000만원 * 유연근무, 근로시간단축 등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사용료 지원</p> <p>일 생활균형 캠페인 제휴기업 할인 등 * 캠페인 참여로 정부지원사업부터 임직원 할인까지</p>
	노동자	<p>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220만원 * 법정,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p> <p>중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약 168만원 * 법정, 20일(유급)</p> <p>중소 난임치료휴가 급여 약 8만원 * 법정, 6일(최초 유급 2일)</p> <p>유산·사산휴가 급여 약 220만원 * 법정, 10~90일(최초 60일 유급)</p> <p>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일 유급 2시간 * 법정, 12주 이내·32주 이후</p> <p>태아검진 시간 1~4주당 1회 * 법정, 28주 이내(4주) / 29주~36주(2주) / 37주 이후(1주)</p>	<p>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 * 법정, 부모 각각 1년(최대 18개월), 초등 2학년 이하</p> <p>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62.5만원 (주10시간 단축 기준) * 법정, 최대 3년, 초등 6학년 이하</p> <p>수유시간 월 30분(2회) * 법정, 1년 미만 유아</p>

※ 지급 요건, 지원 금액, 지급 기간 등을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 지원금액과 차이가 클 수 있음